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연중 제22주일 2020년8월30일(제1958호)

정혜엘리사벳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상돈.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김귀태.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아서 20:7-9	제2독서	로마서 12:1-2	복음	마태오 16:21-27

◉말씀 <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은총 안에서 어떠한 고통도 없는 행복과 평화만이 우리 삶에 펼쳐질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난과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뒤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고 밝히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고 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예고에 반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뜻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심으로써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현세에만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참 생명과 구원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세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각자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끊임없이 찾으며 참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일 자	전 례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9월1일(화)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890.00 $ 562.00
9월2일(수)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30.00 $ 150.00
9월3일(목)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사회복지 2차헌금	$ 0.00 $ 0.00
9월4일(금)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0.00
9월5일(토)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합 계	$ 1,812
9월6일(일)	연중 제23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1명 성인: 51명
교무금 봉헌자	김순녀(9-12월)신영후(8-9월)김계숙(9월)김평옥(8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연대(連帶)

"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 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복음의 기쁨」53항)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연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고, 마침내 모든 인간에게 다다라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이루는 일치의 표지요 도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의 힘없는 이, 희생된 이,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화와 민족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인간적으로' 가꾸려는 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합니다.

어떤 인간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은 사회 원리인 동시에 윤리덕이기도 합니다. 연대성은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배타적 이윤 추구와 권력의 갈망' 같은 '죄의 구조'(「사회적 관심」36항)를 극복하고 사랑과 연대성의 문명을 일구는 데 기여합니다. 윤리덕으로서의 연대성은 타인, 특히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서」195항)

예수님보다 더 연대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류 전체와의 연대를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러한 희생은 극진한 사랑과 연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2,26)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서향자.글라라 영혼	김용문.요한	**생**	본당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샛별Pr.
연	이상순.카타리나 영혼	박수옥.글라라 박병수.벤자민	**생**	본당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아빌라데레사회
			생	본당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여성회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본당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익명
생	김예빈.글라라 건강	이영숙.데레사	**생**	(축일)장.로사리오 영육건강	정의의모후

간장종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탓이오 가슴치는 것은 오늘 내가 정화되고 맑게 씻겨지는 것,
세상의 가늠자보다 겸손해지고 싶은 신음, 그래서 당신 근처에서 숨쉬고져하는 희망.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fax

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 라 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 · 융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융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pm
SACRAMENTO . DUBLIN .LA K-TOWN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옐로스톤 유럽 관광전문

게스관광

(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

Suzie Hair World

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

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

Payee to:

St.J.H.C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실외미사로 인한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성당서편 정자)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2.실외미사 준비 및 안내
실외미사 집전과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3.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분은
우편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4.본당신부님 인사이동
가시는곳;안동교구 문경성당
오시는분;김원현.베드로신부님(울진성당)
송별미사;9월6일(일)오전10시.실외미사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5.신자 주소록
신자 주소록을 새로 마련하고자합니다.
새 주소록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사오니
누락되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분은
구역장에게 연락해주세요(8월30일까지)

6.놀이기구 및 바닥재 교체
신자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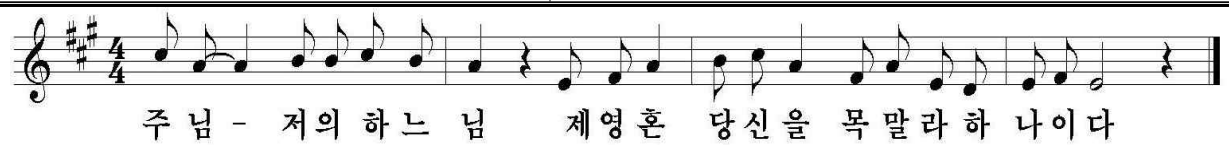
7.St. Mary's묘소 한국세션 근무자 모집
주요업무:한국세션 홍보 및판촉(한국.영어가능
사무실제공하며 주2회 2시간이상근무
문의:고원석 연령회장(916-813-4440)

8.마스크 필요하신분은 연락해주세요.
(어린이용 KN95 마스크)

9.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전례봉사	연중제22주일(8월30일)	연중제23주일(9월6일)	연중제24주일(9월13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20일)
복 사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최진호.다니엘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